

이슈브리프 851호
(2026. 6. 4)

인공지능(AI)과 고귀한 인류 그리고 민주주의

제851호

오일석 nus12006@inss.re.kr



국문초록

지난 5월 25일 레오 14세 교황은 AI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대응을 담은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를 자신의 첫 회칙으로 발표하였다. 이 회칙은 인공지능(AI)이 인류 공존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쟁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회가 응답한 공식 문헌이다. 교황은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중심으로 AI가 공공의 통제하에 활용될 수 있게 '무장 해제'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AI 기술 발전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사고를 탈취하고 행동을 단일화시켜 다양성을 말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차별을 미래로 투영하고, 기존의 차별을 고착화한다.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그 영향력으로 인한 역기능은 사회적 신뢰성을 몰각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AI는 패턴 매칭과 알고리즘 예측을 통해 새로운 감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다.

AI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AI와 알고리즘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통제의 확보가 요구된다. 교황이 언급한 바와 같이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공공의 통제하에서,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향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AI 알고리즘으로부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주제어 : 고귀한 인류, 무장 해제, 알고리즘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 AI에 대한 공공의 통제

<고귀한 인류>

2026년 5월 25일 레오 14세 교황은 AI에 대한 카톨릭 교회의 대응을 담은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를 자신의 첫 회칙으로 발표하였다.¹⁾ 135년 전 레오 13세 교황이 <새로운 사태> 회칙을 발표하여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 문제에 가톨릭 교회가 응답했듯, 이 회칙은 인공지능(AI)이 인류 공존의 방향을 결정하고 전쟁 방식까지 바꾸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교회가 응답한 공식 문헌이다. 이 회칙은 서문을 비롯하여 5개의 장과, 245항으로 구성된 82쪽 분량으로 발표되었다. 각 장의 제목은 △복음에 충실한 역동적 접근의 토대와 원칙들 △기술과 지배 - AI의 약속에 비추어 본 인류의 위대함 △변혁의 시대에 인류를 수호하기 - 진리·노동·자유 △권력의 문화와 사랑의 문명 등이다. 이 회칙은 AI와 자율무기, 노동, 인간 존엄, 소수 기업에 집중된 기술 권력 문제 등에 관한 교회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교황은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중심으로 AI가 공공의 통제하에 활용될 수 있게 ‘무장 해제’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²⁾ 이는 AI가 군사적으로 악용되거나 소수의 권력 독점, 인간 배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교황은 AI 기술이 지배나 배제 혹은 죽음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논리에서 벗어나 무장 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

이러한 무장 해제와 관련하여, 교황은 AI가 모두의 이익과 공동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술에 대한 결정이 양심과 책임감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 박지순, 교황, 첫 회칙 「고귀한 인류(Magnifica Humanitas)」 반포, 가톨릭 신문(2025. 5. 26),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20260526500048>

2) 장현민, “교황, AI에 경고장을 보내다”, CPBC News(2026. 5. 26), <https://news.cpbc.co.kr/article/1173093>

3) 고동주, “우리신학연구소, 레오 14세 교종 사회 회칙 “고귀한 인류” 번역본 공개”, 가톨릭 뉴스(2026. 5. 27), <https://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10>

평화는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데, 기술이 우리의 비판적 사고를 무디게 할 때, 평화는 위협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

교황은 AI의 무장 해제에서 나아가 건설과 재건을 촉구하였다. 교황은 재건이란 단순히 파괴된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신뢰를 되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들과 그 영향을 받는 이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기관과 개인,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특권층 소수가 아닌 온 인류 가족을 위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⁵⁾

호모 AI쿠스

AI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대체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년 1월 CES에서 피지컬 AI를 통해 AI가 인간의 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동까지 대체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핸드폰의 등장으로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도를 보는 능력의 퇴화를 경험하였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쇼츠의 유행은 깊이 있는 사고보다는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만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는 전문적 지식을 생성하고 유통함은 물론 환각까지 만들어냄으로써 인간의 지적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AI 도구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인지 능력, 특히 비판적 사고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AI가 발달할수록 AI는 인간 사고력을 탈취하거나 혹은 대체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하는 능력을 AI에 의존함에 따라 ‘생각하는 인간’은 비효율과 비용을 양산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4) 교황 레오 14세 연설(2026. 5. 25).

5) 교황 레오 14세 연설(2026. 5. 25).

있다.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종말을 고하고 ‘호모AI쿠스’의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AI에 의한 사고의 지배와 행동의 단일화

AI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사고를 탈취하고 행동을 단일화시켜 다양성의 말살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AI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 상황하에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적합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행위 표준을 대다수의 개인들이 준수하게 됨으로써, AI가 제시한 행위 표준은 그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행위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 표준에 기초하여 AI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사상이 모범 답안으로 작동하게 되면 사고와 행동의 단일화를 초래하게 된다. AI가 제공하는 단일한 사고와 행위 표준은 플랫폼을 통하여 확장편향적으로 생산, 유포, 소비됨으로써 다양성을 말살시키게 된다. 다양성의 말살은 정치적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단일한 생각과 행동을 강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들어 스마트폰과 디지털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정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발전은 사고의 탈취와 단일화된 행동을 규범적 행위 표준으로 강제함으로써 사회의 다양성과 정책의 투명성·신뢰성을 무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21세기 국제적 불확실성의 증대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환상과 효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무비판적 확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권위주의적 리더십도

용인하는 사회적·경제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집권하게 된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들이 AI가 생성한 단일화된 행위 표준을 강압함으로써 다양성을 말살하고 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술 발전이 초래하고 있는 사고의 지배와 행동의 단일화 정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한 민주주의 위협

교황은, 위 회칙의 발표와 관련하여, 편견과 불의로 오염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고용, 안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매우 불안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였다.

알고리즘은 본질적으로 역사적 차별을 미래로 투영한다. AI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예측을 수행할 때, 이는 기존 사회적 차별 패턴을 재현하며, 차별받는 개인을 더 나쁜 결과로 내몰아 이를 지속시키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차별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차별의 원인과 영향은 특정 AI 모델이나 코드 외부는 물론 데이터 자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AI 알고리즘을 통한 의사결정은 기존의 차별을 고착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나아가 AI가 사회의 여러 부분에 확산되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차별적 효과들은 상호작용하며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자들의 편향된 결정이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교황도 경고하고 있다. 즉 교황은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고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 내려질 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침묵에 대해서도 들었다고 하였다.⁶⁾

6) 교황 레오 14세 연설(2026. 5. 25).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의 제공과 그 영향력으로 인한 역기능은 사회적 신뢰성을 몰각시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해킹 공격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발신자로 보이는 이메일도 의심하고, 합법적인 금융기관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는 것에도 주의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지 의심하고 있다. AI 알고리즘은 사회적 신뢰성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시키며, 교류와 소통에 대해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 자신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AI 알고리즘은 사회적 신뢰와 협력은 물론 교류와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반인 집회와 결사는 물론 토론과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AI는 패턴 매칭과 알고리즘 예측을 통해 새로운 감시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다. 기계 학습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은, 전례 없는 규모로 위치 추적과 인구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이 광범위한 카메라 네트워크와 연결될 경우, 정부 당국은 사람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어,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의 도래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얼굴 인식과 AI를 활용한 광범위한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민주주의 지도자도 내부 반발을 탐지하고 정치적 상대방을 억압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AI에 기반한 자율무기나 드론 등을 활용하여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불만과 항의 표현을 진압함으로써 권위주의 독재자가 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것이다.

AI로부터 민주주의 수호 방안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AI 시스템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에 의문을 야기하며 편향된 결정을 도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인간의 개입과 통제의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AI 기술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AI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실행함은 물론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AI 기술의 적용과 활용의 일상화로, 첨단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힘이 점차 정치적 권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작동시켜야 한다. 우선 특정 정치 세력이나 첨단 기술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가 AI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I 기술과 시스템이 소수의 특정 첨단 기술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집중화됨으로써, 경제적 민주주의도 위협할 수 있다. 첨단 기술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AI 독점으로부터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과 같은 정치적 기본권도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교황이 언급한 바와 같이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를 중심으로 AI에 대한 공공의 통제하에서, 인간과 AI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여야 한다. AI의 유익한 영향을 극대화하면서도, 위협과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자는 것이다. AI에 대한 공공 통제를 통해, 알고리즘이 인종,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편향을 증폭시키지 못하도록 함은 물론, 알고리즘이 선의(Beneficence)를 추구하고, 공정성과 평등에 기초하여, 균등한 분배, 개인의 역량 강화 및 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편향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AI 알고리즘으로부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적 지도자를 육성하고 그를

선출할 수 있는 국민들을 키워내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인적 교육, 보편적 역사 교육, 인문학적 소양과 문해력 및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정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은 우리 시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간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하며, 양심을 가진 자유롭고 지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찾고, 서로 섬기고, 공동의 터전을 돌볼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하였다. 결국 교황이 강조한 바와 같이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용기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에 맞서며, 더욱 인간적이고 형제애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국민과 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 국민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AI가 초래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